

‘알아 두면 쓸데없는’ 몇 가지 이야기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사람은 안다니(무엇이든지 잘 아는 체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무지렁이(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 가깝다. 어디서 주위들었는지 뜻밖에도 먼저 무지렁이가 말을 연다.

“전라도란 말이 ‘전주’하고 ‘나주’의 앞 글자만 따고 땀글었답사?”

“아따, 자네 유식하네잉~ 어찌케 그렇것까지 알아뵈렸당가?”

“아이고, 사람 무시하지 말더라고, 나도 알 것은 다 안당께. 얼마 전에 광주일보 신문에도 났등만”

“위대, 인자 자네가 신문도 보능갑네. 쓰겼네, 쓰겼어.”

“근디 어쩌서 전주하고 광주가 아니라 전주하고 나주당가?”

“아, 고때만 허도 광주가 나주보다 훨씬 쪼깐한 고을이었던개비어. 근게 전광도가 아니라 전라도 가던 거시제?”

“아, 그라게 되는 거시구면, 근디 광주가 더 쪼 깐한 곶이었다는 그때라 허르, 은제췌를 말하는

거시어?”

“어, 책에서 봉게 고것이 고러 때라고 허등만. 고러 현종 9년 그라니케 1018년인디, 지검으로부터 딱 1000년 전이제. 그라고, 갱상도란 명칭은 쪼 까 더 세월이 지나갔고 고러 충숙왕(1314년) 때 생겼다는구면, 말이 나왔으께 말이지만 자네, 갱상도란 말언 어찌코롬 허서 생긴 말인지 안가?”

“글씨, 자네년 가방간이 긴게 잘 알졌지만 내사 고것까징 어찌케 알졌는가?”

“그러, 그랄줄 알았네. 바람 불 때 노 젓어볼더 라고 기왕지사 이리코롬 됐으께 내 다 말허 췌세. 귀때기 췌긱하고 잘 들어보소잉~”

“거참, 땀 땀이지 말고 얼릉 췌게췌게 말해볼더 라고.”

전라도 천년 그리고 새 천년

“갱상도, 그라니케 갱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만 따갔고 땀글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아이고 솜차다 솜차. 위대 솜찬가.”

“아따, 머 그리 급힌 일도 없으께 쉬어감사로 찬찬히 말허. 근디 조선8도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디 참, 경기도는 어찌케 되는 거시어?”

“응, 고것은 췌가 어렵제. 경기도의 ‘경’이 서울 경(京) 자라는 것이자 자네도 짐작할 티고, 고 다음에 요 ‘기’(畿)란 놈이 솔찬히 복잡허. 시대로 말허면 당나라 때까지 거실러 올라감개로, 하여튼

간에 옛날옛적엔 왕궁 주변의 땅을 경현(京縣)과 기현(畿縣)이라고 했다는디, 거그서 유래돼 갖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畿)가 ‘서울 주변의 지역’을 깔키는 말이 되어본 거시제. 일본에서도 왕이 머물던 교토(京都) 일대릴 기나이(畿内)라 허고 그 바깥에는 긴키(近畿)라 불른다고 안 허등가.”

“아따, 오늘 봉게 자네 참말로 유식해부네. 그 래봤자 모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알쓸신잡’이긴 허지만.”

“팔도강산 좋을씨구 말 찾아 백 리 길~”

“아니 갑작스럽게 먼 노래릴 부르코 지랄이당 가?”

“어, 팔도 지명일 말하더봉게 문덕, 팔도강산이란 노래가 생각나서 한번 불러본 거시제. 자네는 어런게 잘 모르졌지만 요 노래가 60년대에 최희준이가 불러갔고 허벌나게 히트해부렀던, 김희갑이 나오는 영화 ‘팔도강산’ 주제가였거등.”

“60년대면 자네 태어나도 안했것구면, 영범하고 자빠졌네.”

“아따, 근디고 고로코롬 험헌 소리릴 허면 쓴당 가. 그나저나 전라도란 이름이 땀글어지 지 올헤로 1000년이라디 우리 전라도 사람덜은 은제나 한번 잘 살펴보개잉~”

“아이고, 잘사던 것은 땀도고 모다들 깔보지나 안했으면 좋겠구면, 거 일베놈들 보보소. 호랑이가 물어갈 놈들.”

“맛어, 그놈덜사서 꺼떡허면 전라도 사람덜을 흥어라고 비하하는 놈덜 아닝가. 하기는 5·18 당시 시민군일 간첩이라고 허부랭랑한 주장일 허는

땀덜도 있으께, 북창터질 일이제.”

“근게 말어, 우리 전라도명금 산수 좋고 인심 좋은 디도 없을 것인디.”

“암연, 당연헌 말씀이제, 자네 풍전세류(風前細柳)란 말 들어봤는가? 아들이들 바람 앞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삼봉 정도전이 전라도사람덜을 가리켜서 헌 말일제. 그 버드나무명금으로 전라도사람덜은 상냥하고 불임성 있고 보드랍고 멋스럽고 풍류릴 질질 줄 아는데다 손님덜일 후하게 대접하는 친절미가 있다는 거시제.”

의향도 좋지만 이제 부향으로

“아따, 되게 유식헌체게 했잖네. 근디 거 버드나무구 이야기는 나도 들어봤는디, 바람 앞에 흔들리데가 췌대 없고 비겁헌 사람덜이라고 해췌등만, 먼 말이 확 달라부네잉.”

“고거야 때려죽여도 시언장을 넘덜이 전라도 사람덜을 폄하허서 허니 말이제. 억장이 무너질 일이어. 허긴 그동안 전라도 사람덜 땀글시 욱 묵어 온 세월이 한두 해였시아 말이제. 멀찌감치 올라가면 1959년 조영암의 ‘하와이 근성 시비’에다, 그라고 또 1979년 오영수는 머라 했등가. ‘전라도 사람들 표리부동 신의가 없다. 입속 것을 옮겨줄테끼 시구다가도 헤어질 때는 배신을 한다.’”

“아이고 딴기만 허도 열불 나부네”

“그라고 또 이승만부터 시작허서 역대 독재정권덜이 모다 일부러 지역감정일 조장함시롱 전라도릴 희생양으로 삼았는디 짐말로 생각허 보르 그

동안 서럽디 서런 세월이였제.”

“근디고 허서 한히고 한탄만 허고 있으면 쓰켓 인가? 먼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디?”

“응, 글 안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벨 생각얼 다 허고 있다고 허대. 지금엔 땀글없이 췌그라들어 부렸지만 옛날 화려했든 전라도 전성시대릴 되찾을라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냄시로 욱보고 있을 것인만. 아, 그 양반덜이 비면히 알아서 할라 등가. 자네년 가만히 깨대앉아서 곳이나 보고 딱이나 얻어묵소.”

“아 참, 그라고 아까부팅 물어볼라고 했는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어본 디는 전라도베끼 없당가?”

“아니제, 경기도에서도 올헤 ‘경기 천년의 해’ 행사릴 준비하너라고 바쁘다등만.”

“아, 그라면 그쪽에서는 멋있 허고 있능가 한번 덜어다보시롱 아이디어릴 공유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디...”

“그러, 고로코롬 허야 할 것인만, 그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자 포도시 200년이 되었었다디, 전라도 1000년이면 일레나 자랑시러운가? 우리 모다 힘일 합쳐 갖고 앞으로 땀글거머시로 잘 사던 전라도 한번 땀글어 보드라고. 의향(義鄕)이네 예향(義鄕)이네 미향(味鄕)이네 해췌지만 고것이사다 우리덜끼리만 떠드는 이야기고, 놈들헌터 인정 받고 우리도 기한번 피고 삼라면은 부향(富鄕) 전라도릴 땀글어야 허지 않겠는가? 그라라면 6월 선거에서도 잘 개러갔고 갱냥이 되던 시장이나 도지사릴 뵈야 열티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청소년 문화교류 거점으로

광주일보 후원... '희망나무' 봉사단 태권도·축구교실 등 운영

광주일보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의료 봉사를 넘어 다양한 청소년 체육·문화교육 교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대학생들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배우는 현장 학습장이 되고 있다.

11월 사단법인 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지역 고등학교로 구성된 '유스-호프트리(Youth-Hope tree) (회장 서영광·문성고) 회원 14명과 남도학숙 입사생으로 구성된 지역 출신 대학생 봉사단(팀장 이수홍·한양대) 12명이 캄보디아 캄프스푸 주(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루 고등학교 축구부와 친선 축구대회도 거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베이 삼남 캄보디아 캄프스푸 주지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 FC에서 기증한 축구공 20개와 유니폼 30벌 등을 현지 유소년 축구단과 캄프스푸 고등학교 축구부 기증했다. 서영광군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희망나무와 캄프스푸주는 이번 교류협약을 통해 매년 광주지역 유소년 축구단과 캄프스푸 유소년 축구단과의 친선 경기 등을 가질 예정이며, 광주FC 선수들의 축구 지도 등도 계획중이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생으로 구성된 '유스-호프트리(Youth-Hope tree) 회원들과 남도학숙 입사생으로 구성된 지역출신 대학생 봉사단, (사)희망나무 의료진들이 캄보디아 캄프스푸 주(州) 광주진료소 앞 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해외봉사단(NOVIC, Nambodohaksuk Overseas Volunteers in Cambodia)은 현지에서 23일간을 머물며 한글 학교, 태권도 교실과 한국 문화 체험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민간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홍 팀장은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인영(이화여대 1)양은 “함께 하는 즐거움, 그저 전달하는 봉사가 아닌 캄보디

아 주민, 학생들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던 시간이 좋았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나무는 올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인근에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숙소와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광주진료소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한류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원길기자 cki@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참석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한국신문협회 부회장·사진)는 11일~12일 부산 파라디이스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신문협회 2018년 신년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사 발행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로보트 저널리즘의 이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선거보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



다. 신문협회는 이와 함께 현장의 기자들을 초청, 취재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49개 신문, 1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동현태양광 대표 최대성, 동학번출 2016-금강원 062, 분양이저울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가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학번출: 광주광역시 주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3,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식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생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명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생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